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조소희 (KOICA 평가심사실 과장)

목 차

1. 서론
2. 평가 개요
3. KOICA TVET사업 메타평가
4. 베트남 TVET분야 사례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1. 서론

ODA 사업으로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사업은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숙련인력을 제공하여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자아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1990년대부터 KOICA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 및 활동을 시행해왔다.

동 평가는 이러한 KOICA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향후 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의 중점분야로 직업훈련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훈련분야를 중심으로 한 CPS의 중간점검과 이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 및 이행전략을 함께 도출하였다.

본 기고는 2013년 평가과제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되, 일부는 저자가 본 기고에 맞게 수정하였다.

2. 평가 개요

1) 수행 전략

동 평가는 우선적으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KOICA 직업훈련 분야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을 사례연구로 하여 이러한 평가 결과를 베트남의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또한, 베트남 CPS를 중심으로 전략문서로서 CPS가 베트남에서 직업훈련분야 사업의 수행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현 CPS 상에서 KOICA의 베트남 직업훈련분야 지원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성과관리 방안 및 향후 이행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2) 방법론

평가의 1단계인 KOICA 직업훈련 분야 사업 및 평가결과 종합분석에서는 KOICA의 직업훈련 분야 사업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기 실시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직업훈련 분야 관련 전략 문서 및 타 공여기관의 베트남 지원 전략과 직업훈련 사업 자료를 검토하고, KOICA의 베트남 사업 자료 및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CPS 수립 이전 사업의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KOICA와 베트남 현지의 정부 및 공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CPS의 직업훈련 분야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앞서 KOICA의 직업훈련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과 베트남 CPS 수립 전/후 사업 및 전략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KOICA의 직업훈련 분야 사업 성과관리 방안과 이행전략을 도출하였다.

1) 동 연구는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에 위탁하여 수행되었다. 보고서의 전문은 KOICA 공식홈페이지(www.koica.go.kr)의 ‘KOICA사업-사업평가-KOICA발간물 및 평가보고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3) 평가의 한계

동 평가의 한계로는 첫째, KOICA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에 대한 정의와 달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고려한 TVET 분야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 둘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인 평가 보고서의 객관성 및 충실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 적절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엄정히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CPS가 전략으로서 적절히 수립되지 않아 CPS 수립 전과 후의 직업훈련 분야 사업 이행 방식 및 효과성을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 평가는 평가 초반에 TVET 분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분석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둔 메타평가를 진행하되, 동시에 평가 보고서의 질과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하여 KOICA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KOICA 직업훈련 사업 메타평가

1) KOICA TVET 사업의 정의

현재 KOICA가 사용하고 있는 직업훈련 개념은 개별 국가의 TVET 시스템에 따라 수준, 범위,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KOICA 직업훈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수원국의 TVET 시스템에 따라 형식적인 직업기술교육과 비형식적인 직업훈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도 중등 수준(secondary education)부터 중등 후 교육 수준(post-secondary education)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KOICA에서 의미하는 직업훈련은 일차적으로 직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KOICA의 직업훈련 개념이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있기 보다는, 수원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원되는 사업을 직업훈련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는 TVET의 개념을 현재 실시되고 있는 KOICA 사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직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로 사용되는 직업기술훈련은 모두 TVET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이러한 개념(관행)에 기초하여, 평가대상 사업으로 중등 이후의 전문대학 및 폴리텍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기존의 직업훈련원 및 기술 대학교 역량강화 사업,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지원 사업, 기술교육 클러스터 건립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2) KOICA TVET분야 사업 실적

2013년도까지 교육 분야(프로젝트, 개발조사, 초청연수 등 모든 형태 포함)에 대한 KOICA의 지원 금액은 약 7억 7,585만 불로, 프로젝트 사업형태로 지원된 금액은 약 4억 3,172만 불로 조사되었다. 이 중 2억 8,383만 불이 TVET 분야에 지출되어 총 교육 분야 내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1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된 교육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은 총 218건이며, 이 중 TVET 분야는 89건으로 전체 교육 사업 중 44%를 차지하였다. TVET 분야 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프로젝트, 물자지원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NGO 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4건의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이 중 연수생 초청과 프로젝트 형태로 각각 111건과 95건이 진행되어 전체의 78%를 차지하였다.

KOICA TVET 분야 사업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54%의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뒤를 이어 아프리카(24%)와 중동(15%)의 순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3) KOICA TVET 분야 평가보고서에 대한 메타평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KOICA TVET 분야 사업 중 종료평가와 사후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24개의 TVET 분야 사업이며 이 중 종료평가와 사후평가가 각 12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상기 24개 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KOICA TVET 분야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4개의 사업의 종합분석은 첫째, 메타평가에서 함의하는 최협의(最狹義) 개념을 활용하여 각 보고서에 대한 등급책정과 둘째, 협의 개념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 도출로 구성하였다. 이는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등급책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정량화하고, 동시에 책정된 등급이 시사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평가 세부 항목별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와 한계를 종합한 뒤 향후 KOICA TVET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 사업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항목

항목	평가기준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 및 수원국 우선순위 부합성 • 사업지역/수혜자의 필요와 일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한 목표의 달성도가 80%이상/ 50~80%/ 50% 미만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대비 사업비용이 100% 또는 이내/ 100~150%/ 150% 이상 집행 • 계획 대비 사업 수행기간이 100% 또는 이내/ 100~150%/ 150% 이상 소요

항목	평가기준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의 역량개발 및 제도강화 기여도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구조, 기술, 인적자원) 가능성 재정적(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성

등급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JICA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한 Rating system을 준용하였다. 이는 OECD/DAC가 정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평가대상 24개 사업에 대해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다. 영향력의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등급책정에서는 제외되었으며, 대신 사후평가가 이루어진 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2> KOICA와 JICA의 방식을 혼합한 본 연구(평가)에서의 점수체계 및 등급의 정의

항목	평가기준	정의		
		3	2	1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국 및 수원국 우선순위 부합성 사업지역/수혜자의 필요와 일치 	매우적절	부분적절	부적절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한 목표의 달성도가 80%이상/ 50~80%/ 50% 미만 	80%이상	50~80%	50%이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대비 사업비용이 100% 또는 이내/ 100~150%/ 150% 이상 집행 계획 대비 사업 수행기간이 100% 또는 이내/100~150%/ 150% 이상 소요 	100%이내	100~150%	150%이상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구조, 기술, 인적자원) 가능성 재정적(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성 	매우 지속가능	문제점 개선으로 지속가능	지속 불가능

평가등급	점수	정의
매우 성공적	11~12점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초과해서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성공적	9~10점	전체적인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당초 추진사유가 적절하게 유지되거나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부분 성공적	7~8점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과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
미흡	6점 이하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술적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의 기초적인 성과만 충족되고 대부분 달성되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가

제 IV 장

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결과 24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9점 이상을 받아 전체의 약 79%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미흡이라고 평가받은 사업이 단 한 사업에 불과하여 직업훈련 분야에 지원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성과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분석 결과, 24개 사업은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에 대해 3점을 받은 사업이 60% 이상, 2점 이상을 받은 사업이 90%로 파악되었다. 반면, 지속가능성의 경우, 36%의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항목별 분석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경우 재정 마련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24개 중 10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업별 평가 종합결과

번호	지역	평가 종류	시기	사업 명	최종 등급
1	아프리카	종료평가	2012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9 (성공적)
2	아시아	사후평가	2012	방글라데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강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9 (성공적)
3	아시아	종료평가	2011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4	중동	종료평가	2011	요르단 국가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5	아시아	종료평가	2011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6 (미흡)
6	아프리카	종료평가	2009	리비아 건설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8 (부분성공적)
7	아프리카	종료평가	2009	이집트 룩소르 중등기술학교 지원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9 (성공적)
8	아프리카	종료평가	2009	이집트 엠바바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8 (부분성공적)
9	아시아	종료평가	2009	라오스 한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10	아시아	종료평가	2009	인니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11	중남미	종료평가	2009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 훈련센터 건립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12	아시아	종료평가	2009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13	아시아	사후평가	2008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번호	지역	평가 종류	시기	사업 명	최종 등급
14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8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9 (성공적)
15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8	알제리 Beaulieu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9 (성공적)
16	아시아	사후평가	2007	한·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17	중남미	사후평가	2007	코스타리카 우에따르 노르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2 (매우성공적)
18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7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19	아시아	종료평가	2006	한·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 협력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8 (부분성공적)
20	아시아	사후평가	2004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1 (매우성공적)
21	아시아	사후평가	2004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22	아시아	사후평가	2004	한· 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23	아시아	사후평가	2013	한· 베 친선 IT 대학 건립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10 (성공적)
24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1	한· 수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8 (부분성공적)
총 계 (24건)			매우 성공적(7), 성공적(12), 부분 성공적(4), 미흡(1)		

대부분의 사업들이 각 항목별로 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인 등급에서 성공적, 혹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우수한 결과들을 보이는 등, 지금까지 실시된 KOICA 직업훈련 사업들은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초기 산출물 및 계획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항목에 비해 지속가능성 항목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종합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평가보고서들이 대부분 종료평가 보고서였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가 시기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사업들이 사업의 단기적인 산출물(output)에 보다 집중하여 사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에 다소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성) 아국 개발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성은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부합하고, 수원국 개발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성의 경우 24개 사업 중 23개 사업(96%)이 부합하여 KOICA TVET 사업의 전략적 적절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많은 사업이 기본적으로 사업 지역 및 수혜자 필요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국의 구체적인 지원전략 방향 및 우선순위가 부재하거나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광범위하고, 수원국 개발 정책/전략이 사업과 직접 연계되기에는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매우 포괄적인 한계도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 대상 지역의 산업수요 및 지원기관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사업구성요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효율성) 효율성의 경우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56%)이 계획된 기간 및 예산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기간이 지연된 경우, 대부분이 훈련원 건축 또는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 또는 개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1) 수원국 측의 협조 미흡 혹은 2) 이국 측의 사업 준비 관련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업체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효과성) 24개 사업 중 16개 사업(67%)이 의도한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고, 7개 사업(29%)이 의도한 목표의 50%~8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로 산출 수준에서의 의도한 목표 달성도에 기반을 두어 도출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산출 이상의 효과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직업훈련 분야에 지원된 사업의 대다수가 1) 계획 시 직업훈련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산출 이상의 상위 목표가 부재하며, 2) 도출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지표 또한 사업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3)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관리 툴(tool)인 PDM이 부재하여 정확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4개 평가 항목 중 24개 사업이 낮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구조적, 기술적, 인적자원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재정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제도적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를 확보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별 비교 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까지의 KOICA TVET 분야 사업들이 사업의 초기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사업의 사후관리 및 TVET 기관의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향력)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사후평가가 기 실시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 보고서 상의 파급효과 중 1) 상위 목표 달성 가능성, 2) 사업의 역량개발 및 제도 강화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업에서 정의하는 영향력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그 수준도 사업마다 상이하여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 결과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증가로 인한 취업기회 및 고용기회 증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발견되었다.

4. KOICA 베트남 TVET 분야 사례분석

1) 베트남 TVET 개황

베트남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은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와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Welfare: MOLISA)가 나누어 관리한다. MOET는 기술교육(Technical education)을 총괄하며, 기술(전문)고등학교와 기술(전문)대학 등을 관리한다. 한편 MOLISA는 직업훈련을 총괄하며, 초급직업훈련, 중급직업훈련(직업고등학교), 그리고 고등 직업훈련(직업대학)을 관리한다.

베트남 정부의 TVET 관리 체계는 기술교육은 MOET이 총괄하고 TVET은 MOLISA가 총괄하도록 분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MOET은 기술교육에 관해, MOLISA는 TVET의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TVET 기관을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TVET 조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MOLISA, MOET 외에도 다양한 관련 부처(산업통상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교통부, 건설부 등), 국영기업, 지방(Provincial/district) 정부 등이 다수의 TVET 기관들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TVET 분야에서 관련 부처 간 협력 조정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 TVET 분야의 주요 전략 및 정책으로는 TVET 분야를 포함한 베트남의 국가 개발 계획인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1~2015), TVET법(2006 Law on Vocational Training), MOLISA의 직업훈련 발전 전략(Vocational Training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등이 있다.

베트남 TVET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크게 거버넌스 차원의 조직 및 관리 비효율성과 미약한 산학연계, 노동정보시스템의 부재, 훈련 및 교육의 질 관리 미흡, 교사 역량 부족, 훈련 및 교육의 접근성 격차 발생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TVET 분야에 대한 KOICA의 지원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층위의 TVET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 사업, TVET 교사 워크숍 등 베트남의 TVET 분야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실시되어 왔다. 특히 2011년 수립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로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술·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주요 공여국의 베트남 TVET 분야 지원성과

베트남 TVET 분야의 중요 공여국으로는 World Bank, 독일, 프랑스,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이 있으며, 동 평가에서는 ADB, 독일, 그리고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지원현황과 성과가 분석되었다.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ADB) ADB의 2012~2015 베트남 지원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Viet Nam 2012~2015)에 따르면 교육 분야의 목표로 ‘중등 및 상위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지식과 기술 및 기술개발이 현대화된 노동 시장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ADB는 AFD(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프랑스개발청),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NDF, 베트남 정부(co-financing, 총 8,630만 불)와 함께 1998년부터 MOLISA(수행기관)가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후 ADB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Japan Special Fund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아 ‘Skills Enhancement Project’를 이행 중에 있다. 특히, ADB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기관 지원에서 나아가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개선을 도모했던 것으로 파악되나 주요 정부 부처(MOET, MOLISA)간 관리 기능 중복, GDVT(General Department of Vocational Training)의 관리 역량 부족,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다소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ILO) ILO는 베트남 정부와 2006년 ‘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on Promoting Decent Work (2006~2010)’에 서명하였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노동제도, 노동시장과 고용, 사회보장과 직업안전 및 건강, 취약집단의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ILO의 베트남 TVET 분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MOLISA의 협력을 통해 2008년부터 이행된 ‘Labor Market Project(EU의 자금 지원)’가 있다. 동 프로젝트 예산은 총 1,830만 불 가량이며 1) MOLISA 및 선정된 지역(Province) 당국의 노동시장정보 센터 기획 및 개발, 2)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평가 문서 개발, 3) 다양한 직업능력 수준의 직종에 대한 시범 평가가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이었다.

(독일) 독일은 ‘베트남-독일 TVET 프로그램(Vietnamese-German TVET Program)’을 통해 GI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독일국제협력공사),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독일부흥은행)를 비롯한 독일의 집행기관들이 기술협력과 재정협력 지원을 하고 있다. 베트남-독일 TVET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숙련노동자를 전체 노동력의 55%로 향상시키고, 1/3이 성공적으로 중·상급 TVET을 이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및 시스템 자문과 대상 기관의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두 축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동 TVET 프로그램 하에서 ‘Promotion of TVET(2006~2010)’, ‘Program Vocational Training 2008(2010~2014)’, ‘TVET System Advisory Project(2008~2014)’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는데, 이 중 ‘Promotion of TVET’ 사업은 베트남의 11개 TVET 기관을 선정하여 시장지향 훈련 모듈(Market-oriented training modules) 초기 개발 및 채택,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준비 및 개발, 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교사/관리 인력 강화, 신식 훈련 기자재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3) CPS 이전 베트남 TVET 사업 평가결과 분석

베트남 CPS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 즉 2010년도까지의 베트남에 대한 KOICA TVET 분야 지원 사업들은 주로 훈련 시설 건립과 같은 단일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사업 내용이 훈련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자재 공급, 커리큘럼 및 훈련 자료 개발, TVET 교사 및 관리자의 능력 개발 등에 제한되어 있다.

분석 대상은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한·베 친선 IT 대학 건립사업, 그리고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1차 & 2차) 5개 사업이며, KOICA TVET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프레임워크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분석대상 5개 사업의 항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적절성이 3점 만점에 3점, 효과성은 2.4점, 효율성은 2.8점,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2점으로 평가 대상 5개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 최종 등급을 부여한 결과 5개 사업 모두 성공적 이상의 점수를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의 경우 12점 만점에 11점을 받아 전 평가 항목에 걸쳐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 CPS 이전 5개 사업들의 개별사업 평가결과

번호	사업 명	평가보고서	평가시기	최종 등급
1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2004	11 (매우 성공적)
2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2004	10 (성공적)
3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사후평가	2004	10 (성공적)
4	한-베 친선 IT 대학 건립사업	사후평가	2013	10 (성공적)
5	한-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2009	10 (성공적)
총 계 (5건)		매우 성공적(1), 성공적(4)		

(평가결과 종합) 이들 사업들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1) 베트남 TVET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수립의 필요성, 2) 이를 위한 면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 3) 보다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의 필요성, 4) 우수 TVET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으로 앞서 실시된 KOICA TVET 사업의 종합분석결과 시사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표 5> CPS 이전 베트남 TVET 분야 사업의 성과(Outcome) 비교분석

대상	성과지표 ²⁾	결과 ³⁾	비고
퀴논 직업훈련원	1. 수료생의 취업률 2. 훈련원 운영 및 기술전수 3. 교사의 수준	1-1. 취업률 95% 이상 달성 2-1. 효율적 운영 3-1.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경력보유	사후평가
하노이 직업훈련원		1-1. 취업률 95% 이상 2-1.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영문매뉴얼 필요 3-1.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경력보유	
한·베 산업 기술학교(1차)		1-1. 취업률 95% 이상(단, 정보통신 졸업자의 경우 65%) 2-1. 효율적 운영	
한·베 친선 IT 대학	1. 교육시설 및 교육 역량 구축 2. 전문 직업인 배출 3. ICT 산업의 활성화	1-1. 건축 및 실습장비 제공,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2-1. 2007년 개교당시 입학생(720명), 2013년도 기준 (1400명)으로 증가 / 2007년 개교당시 교직원(53명), 2013년도 기준(206명)으로 증가 3-1. 2013년까지 2090명 졸업생 배출, 그러나 전체 졸업 생의 50% 미만이 취업하고 전공과 관련한 취업이 50%에 불과함.	사후평가
한·베 산업 기술학교(2차)	1. 건축 및 기자재 2. 교육수준 3. 교사확보	1-1. 전반적 만족, 그러나 일부 기자재의 고장 및 누수현상 2-1. 이론과 실습의 균형이 잘 잡힘 3-1. 우수한 교사의 확보	종료평가

4) 베트남 CPS TVET 분야 중간점검

베트남 CPS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베트남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베트남의 개발환경과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베트남 지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크게 지속가능성장(환경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기술·직업훈련), 경제인프라(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세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 CPS는 협력전략에 따른 베트남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 상의 목표인 ‘현대화된 산업국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베트남 CPS가 수립되고 ‘인적자원 개발-기술·직업 훈련’가 중점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베트남의 TVET 분야 개별 사업은 동 CPS의 분야 전략 하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베트남 CPS의 TVET 분야 전략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대화된 산업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창출과 빈곤퇴치에도 기여’하는 것을 분야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 전략의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하노이 직업훈련원,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1차)의 경우 평가가 한꺼번에 실시되어 동일한 효과성 지표가 적용되었다.

3)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하노이 직업훈련원,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1차)의 경우 효과성 분석결과가 대부분 대상자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되었다.

본 평가팀은 베트남 CPS TVET 분야의 중간점검을 위해 상기의 베트남 CPS TVET 분야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매트릭스를 수립했다. 동 매트릭스를 통해 먼저 CPS가 전략으로서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TVET 분야 전략의 방향의 적합성과 내부적 유기성을 살펴보고, KOICA의 사업이 베트남 CPS의 Business Plan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였다. 또한 베트남 CPS의 TVET 분야 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이행방안들의 이행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CPS 전체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CPS 이행전략과 성과관리 방안의 추진현황을 KOICA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표 6> 베트남 CPS 직업훈련분야 점검 매트릭스

구 분	세부 항목
전략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방향의 적합성 (Relevance of Strategic Positioning) • 전략의 내부적 유기성 (Internal Coherence)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S Business Plan에 따른 사업 이행
성과관리 방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 국별협력전략 평가
이행방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 민관협력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 종합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 • 원조조화 참여
CPS 이행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배분 및 조직 •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제 I 장

제 II 장

제 III 장

평
가

제 IV 장

(전략 점검) 전략 방향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특성,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베트남의 개발수요, 한국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TVET 분야 지원 방향이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 전략 방향과 연계되는 하위 지원을 통해 베트남 TVET 분야의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CPS 상의 TVET 분야 목표가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CPS TVET 분야의 세부 지원이 상위 분야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베트남 CPS의 Business Plan은 주요 분야 프로그램 별로 CPS 수립 당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검토 중인 모든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현재 KOICA의 TVET 분야 사업은 상기의 Business Plan에서 계획한 대로 6개의 사업 모두 예정대로 착수하여 이행 중에 있다. KOICA의 사업이 여전히 인프라 확충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 분야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일부

존재하여 KOICA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CPS의 TVET 분야 전략과 일차적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CPS가 산정하고 있는 기여 목표 역시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 성과관리 방안 점검) 현재 베트남 CPS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안은 한국의 사업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전략 기간 동안 협력국의 분야 및 국가 개발 성과에 기여하는 바를 알기 어렵다. 또한 베트남 CPS는 전략의 목표, 성과 지표, 출발점(기준치), 측정 방법 등을 포괄하는 결과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으며, CPS 주기 내에 국별/분야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하여 국별 평가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사업 이행방안 점검) 베트남 CPS의 사업 이행방안은 TVET 중장기 전략 수립, 종합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 민관협력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원조조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행 방안의 층위에 대한 구분 없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활동을 단순히 나열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평가의 대상인 KOICA가 TVET 분야 사업 기획 시 산학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부 사업이 취약계층인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등 CPS의 이행방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CPS 이행전략 점검) 베트남 CPS는 앞서 살펴본 TVET 분야의 이행방안 외에도 CPS 전체에 적용되는 이행전략으로서 재원배분 및 조직,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KOICA가 현지 사무소의 인력을 확충하고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며 원조조화를 위한 상주 전문가를 파견한 점 등은 CPS와 연계되는 이행 노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TVET 분야의 원조조화 참여 노력이 부진하고 개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다소 이행이 미흡한 부분은 KOICA가 남은 CPS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KOICA TVET 사업 종합분석 및 베트남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KOICA TVET 분야 사업에 대한 주요한 교훈 및 시사점은 1) TVET 개념의 올바른 사용, 2) 국별/분야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3)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획의 내실화, 4) TVET 프로그램 및 사업 수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5) TVET 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6)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 7) 'TVET 우수기관'설립으로 사업 모델 전환, 8) 차별화된 지원전략의 추진, 그리고 9) 타 사업수단과의 연계 필요로 정리될 수 있다.

1) TVET 개념의 올바른 사용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관련된 개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올바른 개념의 사용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대 들어 통합적인 개념인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사용된다.⁴⁾

그러나 TVET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라는 통합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직업훈련’ 또는 ‘기술·직업훈련’ 등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 사업대상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이론중심의 ‘기술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해야 할 경우에, 실기 중심의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한 경우다.

따라서 현재 국제개발협력 문건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총칭할 경우는 직업훈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업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 상황(context)에 맞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별/분야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향후 KOICA 직업훈련 분야 사업들이 아국의 관련 분야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여 지원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국별/분야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KOICA 직업훈련 중기전략(2011~2015)이 수립되어 있지만 내용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결과적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 KOICA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전략은 KOICA의 상기 분야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KOICA의 전략적 목표가 직업훈련 분야에 특화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직업훈련에 대한 인지 제고, 질 관리(Quality control), 산학협력,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 직업훈련 분야에서 실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형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국가별로 지원의 방향이 차별화되거나, 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수립된 CPS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PS 상 기술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분야가 중점분야로 선정되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부합한 TVET 분야 지원전략을 CPS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베트남 CPS에 대한 점검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CPS가 전략문서로서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KOICA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방안 역시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획의 내실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TVET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TVET 개념과 시스템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이 없이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구성요소가 수원국의 TVET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협력기관이 적절하게 선정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 TVET 분야 정책 및 전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원국 TVET 분야 이슈,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사업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수원국 차원의 동 분야 정책이나 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시에는 이와 같은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원국 측의 전략 부재 시 사업 수요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분석 및 지원 사업의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보다 내실 있게 담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TVET 프로그램 및 사업 수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향후 직업훈련 사업들이 갖는 엄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 이상의 상위의 달성가능성과 성과 설정, 성과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표 수립 및 이에 따른 데이터 수집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각 사업의 PDM 상에서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KOICA의 지원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사업의 상위 목표가 제시되어 할 것이며 직업훈련 분야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 사업 수준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관계자들 간의 역할 분장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중장기 성과 및 영향력의 경우 추적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나 수원국의 정보시스템 및 PMC와 협력기관의 역량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사업의 구성요소에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TVET 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된 훈련기관이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교육훈련과정과 같은 정규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원된 시설 장비를 활용한 생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TVET 기관이 자체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기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기관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 커뮤니티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관의 수입을 창출할 능력을 가진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KOICA 지원 TVET 기관이 재정적/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출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KOICA 사업구성 요소 중에서 사업의 사후관리 및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역량의 강화, 즉 기술지원요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6)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

수원국의 개발필요 및 산업수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은 일차적으로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교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기관의 전공분야 우량기업을 선별, 접촉, 협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및 취업약정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인근지역에 대한 일차적인 산업체 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후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산업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산학협력위원회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산학협력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아직까지 산학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KOICA는 사업의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산업체를 사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TVET 우수기관'설립으로 사업 모델 전환

TVET 지원 사업은 TVET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우수기관 (Center of Excellence of TVET)'설립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공여기관들은 수원국에 이러한 TVET 우수기관을 설립하여 타 TVET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도 이러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베트남 정부 및 타 공여기관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기관의 특징은 첫째, 고용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수원국의 TVET 시스템과 관련된 추가적인 기능(functions)을 수행하는 것이다.

8) 차별화된 지원전략의 추진

특정국가에 유사한 사업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보급형 지원사업은 해당 국가에서 재원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건물, 장비 등 프로젝트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기관의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 등 기술협력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바, 지원기준은 상대국에서 자체재원이 있더라도 기술, 노하우 및 경험의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하는 바, 프로젝트의 수원기관 및 사업지역에만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보다는 가능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I장

제II장

제III장

평
가

제IV장

9) 타 사업수단과의 연계 필요

TVET 지원 사업은 지원 내용에 시설 건립(또는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이 포함될 경우 많은 비용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훈련원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 재료의 구입 등을 위한 비용과 시설장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지속적 기술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원국의 경우 시설 운영 예산 및 관리 운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는 시설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TVET 지원사업 설계 시 시설 건립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유상원조 및 민간분야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한다면 보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